



산골 마을로 들어간
인형극단 누렁소



장마의 끝자락. 오늘만큼은 지겨운 장맛비가 아닌 한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고마운 비였다. 할머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이들이 장계 문예복지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인구 오천 명 남짓의 이 작은 산골 마을에 이처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는 그리 많지 않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밝은 얼굴로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며 3층 대강당으로 들어갔다. 강당은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들먹하다.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떠들던 아이들이 어느새 무대 앞에 나와 춤과 몸짓을 가르쳐주는 진행자를 따라 노래 부르며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장수군청이 주관하고 인형극단 누렁소가 진행하는 '장수사람들과 함께 하는 인형극'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중이다.

생활협동조합 소나무와의 인연

인형극단 누렁소의 남다른 점이라면 크고 깨끗한 공연장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누렁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 않고 달려갔다. 공연이력은 화려하지 않으나 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 다녔기에 '순회공연'이 주된 공연의 형태였다. '불우아동을 위한 인형극 순회공연', '장애인 시설 순회공연', '시골 초등학교 순회공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누렁소는 그 옛날 유랑 극단처럼 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달래는 한줄기 물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을 흘러 다녔다. 그래서일까, 고정 단원은 단장이자 단원인 서해자(35)씨 한 명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누렁소를 거쳐 갔지만,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행장을 가볍게 하듯 누렁소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까지 왔다. 그런 누렁소가 소백산맥의 한 끝자락인 장수군에 정착을 한 건 얼마 전이었다.

서씨가 인형극과 인연을 맺은 건 고향인 원주의 한 인형극회에 다니면서부터였다. 그곳에서 서씨는 인형 만

들기와 간단한 인형조작 등을 배웠다. 서씨는 본격적으로 인형극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서씨는 한겨레 문화센터의 인형극반에 등록하고 일 년 동안 배웠으며 그 뒤로는 혼자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난 1997년 인형극단 누렁소가 탄생하였다. 물론 극단 창립 당시 유일한 단원이 바로 서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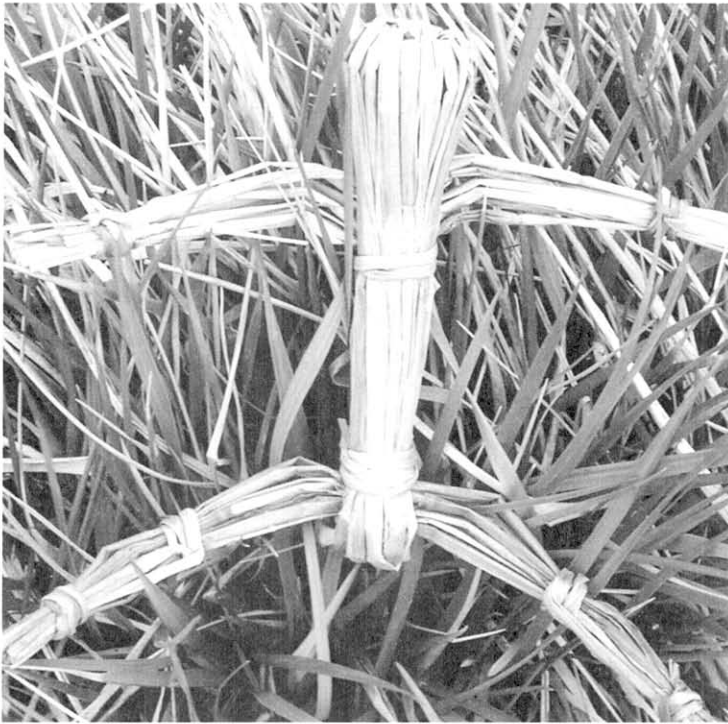
“제가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죠. 저는 원래 천성이 자유분방한 탓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매달리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흘린 거죠.”

인형극단 누렁소의 탄생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많았다. 특히 생활공동체 소나무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생활공동체 소나무의 기원은 도서출판 소나무이다. 당시 이 출판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유독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학교를 개최했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1996년부터 공동체를 결성하여 활동해오다가 2002년에 생활협동조합으로 발돋움했다. 서씨는 1997년 소나무를 알게 되었고 이 활동에 공감해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인형극단 누렁소는 서씨를 비롯한 소나무 조합원들의 공동작품인 셈이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금 인형극단 누렁소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서씨의 남편인 우현(45) 씨다. 우씨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무대 설치며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도맡아 해준다. 물론 소나무 조합원들도 아낌없이 일손을 빌려준다. 누렁소의 운영을 서씨 혼자 책임지다시피 하다보니 서씨의 행보와 극단의 행보는 일치한다. 서씨가 흘러 다닌 만큼 극단 역시 여러 곳을 흘러 다녔다.

이곳 장수에 자리 잡기 전 누렁소는 경기도 가평에 있었다. 그곳에서는 소나무 조합원들이 집단을 이루며 살



◀ 제웅이라고도 하는 짐으로 만든 인형
▲ 성황리에 공연을 끝낸 서해자 씨

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귀농을 위해 내려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연학교를 열어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아이들에게 가르쳤다. 그러나 가평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급속도로 변해갔다. 서울 근교인데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탓에 외지인들의 투자가 몰리고 개발이 이뤄졌다. 그러자 그 중 일부가 가평을 떠나기 위해 다른 정착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곳이 바로 장수였으며, 자연스레 인형극단 누렁소 역시 가평을 떠나 장수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수에 터를 잡았다 하여 지역 극단으로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각종 행사와 여러 단체들에 초청되어 공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수에 터를 잡은 만큼 장수라는 지역에 남달리 애착이 가는 건 당연하다.

“저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언젠가는 이곳 장수를

떠날지도 모르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이곳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어요.”

서씨는 바쁜 공연 일정 중에도 틈틈이 텃밭을 일구며 산다. 그리고 다른 소나무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귀농을 하는 게 꿈이라고 한다. 이런 탓에 인형극단 소나무의 주된 공연 내용도 친환경적이며 토속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날 공연된 굽단이라는 인형극은 서씨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개와 관련된 기억을 재구성한 것이다.

“물론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이라면 외국 동화를 각색해서 인형극을 올릴 수도 있지만, 되도록 창작극을 중심으로 공연할 생각이예요.”

대강당을 가득 메운 사백 여 명의 관객들은 인형극을 무척 반기는 눈치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웃고 동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공연을

끝낸 서씨는 아직도 아쉬운 점이 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모토를 내걸었는데 이처럼 사람들이 찾아와야 하는 공연을 했으니 아쉽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관하는 장수군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을 섭외해 공연하자고 했으나 서씨가 반대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본래 의의에도 적합할뿐더러 많은 관객을 쉽게 동원할 수 있을 터이다. 하지만 서씨는 좀 더 다른 욕심이 있었다.

인형극에 대한 편견

“어찌 보면 인형극에 종사하는 선배 예술가들이 자초한 측면이 많아요. 흔히들 인형극이라면 ‘유치하다, 어린이들만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편견을 갖도록 한 건 우리 자신이거든요.”

서씨는 인형극이 어린이 관객만을 대상으로 한 예술장르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미 인형극을 하나의 예술로 보는 그의 관점에는 관객을 어린이로 한정짓는 좁은 의미의 인형극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 그래서 어른들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을 고집하고 장소도 문예복지관의 대강당으로 정한 것이다. 어쨌든 공연은 성황리에 끝났다. 인형 극단 누렁소가 장수에 자리 잡은 뒤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갖는 공연이었다. 첫 신고식을 무사히 치른 셈이다.

“앞으로는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싶어요. 마을 정자나 회관에 마을 어른들과 아이들을 모아 놓고 함께 웃고 울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하는 게 누렁소의 꿈이에요.”

그는 커다란 공연장에서 인형극을 하게 되면 인형극 본래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고 믿는다. 공연장이 작아

야 관객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 있으며, 관객들 역시 인형극에 몰입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누렁소에게 안성맞춤인 공연장은 바로 삶의 터전 속에 있다. 앞으로 장수지역 사람들을 위한 인형극 교실을 열어 아이들과 어른들의 참여를 유도해 창작인형극 발표회를 가질 계획도 가지고 있다. 누렁소는 또한 어려운 농촌을 묘사하는 창작극을 만들 계획도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피폐해지는 농촌환경에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는 환경극을 비롯해, 수입개방과 이농현상으로 황량해지는 농촌에



2기 회원들이 직접 만든 인형을 이용한 인형극 발표회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창작극을 준비 중이다.

극단의 이름인 누렁소처럼 믿음직하며 순박하고 똑심 있는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산골 마을에 찾아 온 이 뜻하지 않은 인형극단이 희망의 발을 갈고 있는 모습은 조만간 보게 될 것 같다.

손 홍 규

1975년 전북 정읍 출생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 수상으로 등단
<바람 속에 눕다>, <사람의 신화>, <아이는 가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난다>, <폭우로 걸어 들어가다>, <갈 수 없는 여름> 등 발표.